

기도 응답의 조건을 맞추어라

왜 축복과 기도응답이 안 올까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축복의 조건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두드리면 준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조건을 맞추지는 않고 바라기만 해서 응답받기를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100% 지키시는 분이시고, 누가 예쁘거나 잘났던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조건을 100% 맞추시면 기도 응답이 100% 옵니다. 제가 주님의 조건들을 맞추었을 때부터 저는 주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체험하였고 많은 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하려고 하셨을 때 교회 사람들이 찾아가도, 아무리 기도해도 부모님의 결정을 막지 못하였는데 주님께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셔서 금식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부모님의 이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하는데 따로 돈을 벌지 않고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좋은 아내도 얻고, 자식도 주셨고, 주님을 만나기도 하였고 천국, 지옥과 천사들을 보았으며 놀라운 주님의 복들을 체험하였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100% 실천하십시오. 약속된 축복마다 주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조건을 맞추십시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여기서의 조건은 첫째,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예레미아 29:13)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조건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찾으면” 입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은 계속 찾고,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7) 때로는 기도 응답이 한 달, 두 달, 100일, 1년 이렇게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조건을 더욱 맞춰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으로 더욱 알아 가시고, 철저히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굴복시켜 주님의 약속들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응답이 안 이뤄지는 이유

우상숭배

돈, 물질, 사랑, 사람관계, 나의 문제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면 일이 안 풀리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직접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길을 막아 버리신다면 그 누구도 열수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나의 우상이 된 것들이 잘 얻어지고, 잘 이루어 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여 마음대로 즐기도록 내버려두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로마서 1:28-32) 이것은 결국엔 망하고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까지 왔다면 정신 차리고 진실로 진실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하셔야 합니다.

돈이 우상이라면 돈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고, 남자나 여자가 우상이라면 그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아들과 딸이 우상이 되면 그들 때문에 고통 받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주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 교회에는 '바쁘다. 피곤하다' 핑계 대며 지각하고, 잘 다니지 않으면서 직장 가는 시간은 철저히 잘 지키고, 놀러 다니는 것, 애인이랑 데이트하는 것 등은 빼놓지 않고 하시면 그것들은 이미 당신의 우상입니다.

- 찬양은 대중 부르지만 노래방에 가서 세상노래는 멋지게 부르는 것 또한 하나님을 기만하게 여기는 것이고,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찬양이고 우상입니다.

- 직업이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겨서 그들이 부르는 술자리에 참여하고 마시고 하나님과의 데이트하는 기도시간, 말씀묵상 시간들을 깨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다른 것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 십일조나 헌금을 하라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다시 심중히 계산해서 내거나, 헌금하기를 싫어하고, '십일조는 율법이다.' 라며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교단을 찾아 교회를 바꾸는 것은 모두 돈을 주님보다 더욱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 일한다는 핑계로 자신을 정당화하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일보다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언젠가는 일 때문에 마음과 몸에 큰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주님보다 우선순위로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마음은 언젠가는 크게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나의 말을 체크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만 이라도 여러분의 말을 녹음해 보시고 여러분을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다 물질이나 직장, 여자, 남자, 음악, 엔터테인먼트, 영화, 불평, 악한 말, 비난, 비판 등 세상 것을 절반 이상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는 조금 밖에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밖에 없고 다른 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마태복음 12:34)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차지 않아서 세상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여 말을 할 때에도 세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들이 예수쟁이라고 불릴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상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들의 나라에서 쫓김 당하는 벌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흠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우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열왕기상 14:15-16)

나의 자신이 우상이 된 경우

내가 하고 싶은 데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찾고,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하나님 외의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나의 자신이 신이된 경우이고 우상인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의무가 있습니다. 주 라고 부르시는것은 주인이라고 부르시는 것 입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해서 사는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진정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을 여태껏 섬기고 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주세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도응답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은 좋으신 분이요, 나를 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설마 응답하여 주실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6-7)

중언부언으로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를 부지런히 찾을 때에 나에게 보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히브리서 1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마가복음 11:24))

기도할 때에는 주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기도와 금식을 한다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응답 받을 것을 알고 믿는 확실한 믿음 위에 기도를 해야 하며 오직 필요한 것을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만약 믿음이 적다면 방언으로 기도를 몇 시간 하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1:20)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믿음이 생기고 주님께서 해주실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며 주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루어 질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기도를 멈추지 말고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한 시간이던 세 시간이던, 열 시간이 걸리던 계속 하십시오. 그리하면 정말로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믿음이 생겨서 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죄를 회개한 이상,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겸손히 달라고 하시면 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세로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4:6)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족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야고보서 4:2-3)

나를 세우기 위한 것, 어떤 것이든 나를 세우기 위해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서기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남의 존경심을 얻기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정욕적인 것, 우상이 될 것들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란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24)

예를 들어서, 아내 얻기를 끝까지 기도하시면 받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한 다음,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나의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 고생하는데 더 고생하라고 놔두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라면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고생도 시키시지만, 어린 믿음에 상처주기 위해, 놀리기 위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안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분을 찾는 기본이 충실히 되어 있으면 그분께서는 공급하는 분이시니, ‘너 죽도록 고생해봐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 좋아하는 것은 다 주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바라는 것들을 주님보다 더 원하거나 사랑하지 마십시오. 또 세상의 정욕에 따라 구하지 마십시오. 아예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주님을 얻기 위해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육적인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을 짐승에 비교하며 싫어하십니다.

“광야에 익숙한 야생 암나귀 곧 자기 쾌락에 빠져 바람을 맡으며 쿵쿵대는 암나귀니라. 그것이 이렇게 행할 때에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그것을 찾는 모든 자들은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아니하리니 그것의 달에 그들이 그것을 만나리라. 네 발을 억제하여 벗은 발이 되지 않게 하며 네 목을 억제하여 목마르지 않게 하라, 하였거늘 너는 말하기를, 소망이 없도다. 전혀 없도다. 내가 타국인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들을 따라가리라, 하였도다.” (예레미야 2:24-25)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풍조, 쾌락의 냄새를 맡아 남들이 한다고 하여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은 쫓지 마셔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로마서 13:14)

회개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이사야 59:1-3)

회개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잘 모르고 자신이 지옥가는 줄도 모르는 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악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행위이며, 나와 주님 사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갈라놓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처참하게 가장 극심한 형벌로 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귀중한 보혈을 기만하게 여겨 어떤 죄든지 마음껏 질 수 있는 면허증이라도 탄 것처럼 죄짓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지옥을 가게 하시고, 살아있을 때는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여기십니다.

“네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네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다.” (시34:13)

주님은 그를 항상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귀 기울여 듣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자들은 오직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자신과 다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시편 66:18)

이것에 더 알고 싶으시면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 을 참고하세요.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면

죄악 때문에 몸에 병이 나거나 기도를 많이 하여도 자꾸 나쁜 일이 일어나는 어떤 저주가 임한 것 같으시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후, 우리아를 죽게 하도록 음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행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7일을 금식했지만, 주님께서서는 벌로 그들에게서 난 첫 아들을 거두어 가셨고,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서로 죽이며, 또 압살롬 아들은 다윗의 첩들을 대낮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천막을 치고 범했습니다.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잘 따르시면 죄 때문에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히브리서 12:4-7)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호되게 혼내십니다. 무섭고 차가울 정도로 벌은 냉정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 지옥에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나도록 치십니다. 그가 호되게 다윗을 벌하셨지만, 다윗은 그 일 이후로 음란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회개할 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13)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옥에 바로 보내시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먼저 회개하시고, 기도를 하여도 응답이 없다면 죄악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 나의 자신을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잘못했거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악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3:7)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 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맨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22-24)

나의 죄나 잘못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의 기도가 주님께 잘 상달될 리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받았거나 물질적으로나 육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공정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사람을 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가 다른 자녀를 때리고 그의 장난감을 힘으로 빼앗아 다른 자녀가 울고 있다면, 당연히 잘못된 자녀를 벌주고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부모는 그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에게 가서 사과하고 보상해야 나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요한일서 5:14)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3)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이루어주시지만, 나의 정욕을 채우려고 구한다면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고 필요한 것이 모두 있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 경우, 복권을 당첨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 ‘저 남편이 제 남편이 되게 하소서.’ ‘저 여자가 제 아내가 되게 하소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루어지지만 아닐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저주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주님께서서는 가난이 온다고 하십니다. 사기 치는 것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도적질, 살인, 남이 죽기를 바라며,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들어주시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기도한다면 자신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잘 공부해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직장을 욕심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라리 조금 겸손하게 낮은 곳에 가서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으니 너무 높은 곳을 바라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한두 번 기도했다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속삭이기만 해도 들어주신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주님을 아주 기쁘게 하는 분이거나 큰 믿음을 가지신 분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드리고, 찾고, 쉬지 않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도 밤을 새워 온 힘을 다해 기도하여서 홍해가 갈라졌고, 엘리야도 일곱 번이나 머리가 무릎사이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여 응답받았습니다. 다니엘도 21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씩이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죄 없고 의로운 예수님도, 경건하게 사는 선지자들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여 응답을 받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히브리서 11:6) 주님을 부지런히 온힘을 다해 찾으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권세잡은자들 즉 마귀가 기도를 막고있기때문에 금식과 기도로 또 마귀를 담대히 쫓아내고, 교만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지않습니다. “금식 안하는 그리스도인?” “교만 - 버리지 않으면 천국도 못갑니다” 를 참고하세요

